

#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 호 임\* · 성 지 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은 사회·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와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간호 교육은 이론적 지식의 현장 실무 적용 및 통합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더욱 큰 혼란과 변화가 야기되었다(Cho & Shin, 202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감염 위험성과 안전에 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ee et al., 2022),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은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긴장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신종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 및 이에 대비하는 간호의 역할과 간호교육의 방향을 고려할 때 COVID-19 시기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타

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OVID-19는 신종 감염병으로 질병 및 질병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Lee, 2020).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없이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다(Yoo, 2020). Kim과 Park (2018)은 2015년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MERS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의 부정적인 정서 반응 및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Spoorthy, Pratapa와 Mahant (2020)과 Zhang 등(2020)의 연구에서도 COVID-19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의료진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수준 정도를 확인하고, 지식 수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https://orcid.org/0000-0001-7108-8810>) (교신저자 E-mail: dlghdla93@gmail.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https://orcid.org/0000-0002-0099-0804>)

• Received: 20 June 2023 • Revised: 31 July 2023 • Accepted: 3 August 2023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o Im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South Korea  
Tel:\*\*\* - \*\*\*\* - \*\*\*\*\* Fax: +82-51-990-3970, E-mail: dlghdla93@gmail.com

요가 있다.

COVID-19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전 세계가 느끼는 사회불안 요소이며(Park, Kim, Lee, & Kang, 2021), 특히 병원 환경은 광범위한 접촉 위험이 수반되기에 신중 감염병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불안이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Jin, & Lee, 2021; Collado-Boira et al., 2020). 간호대학생이 불안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에서 학습감이 저하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담감과 위축을 느껴 임상수행능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Yoon & Kim, 2016). 임상실습 환경에서의 불안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Kim & Yang, 2015),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불안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하며(Lee & Lim, 2021), 간호에 대한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간호대학에서는 간호이론 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높아(Park & Oh, 2014)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COVID-19과 같은 신중 감염병 상황에서 소명을 가지고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22), COVID-19 상황 속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Lee et al., 2022; Park et al., 2021) 이들의 간호전문직관 정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신중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간호의 역할 및 간호교육의 방향을 고려할 때 신중 감염병 시기에 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신중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영향요인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COVID-19 팬데믹 이후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명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최소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검정력 .80, 예측요인 수 12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27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응답 또는 불충분한 답변의 표본은 없어 140명을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COVID-19에 대한 지식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Kim, Cheon과 Yoo (20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Kim과 Choi (2016)가 사용한 메르스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을 조사한 문항 및 한국 질병관리청(2020)의 보건의료인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정보와 대응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집단(내과전문의 1인,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1인,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개발된 것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오답과 모르겠음은 0점, 정답은 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COVID-19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등(20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Kuder-Richardson 20 (KR 20)=.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KR 20=.74이었다.

#### 2) 불안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Spitzer, Kroenke, Williams과 Lowe (200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범불안 장애 측정도구인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를 한국어판으로 도구 타당도를 검증한 Seo와 Park (2015)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GAD-7은 7개 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0점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에서 3점 '거의 매일 방해받았다'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Spitzer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였으며, Seo와 Park (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3)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Yeun, Kwon과 Ahn (2005)이 개발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Han, Kim과 Yung (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의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으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까지이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Han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6이었다.

####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a (1991)가 개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Kim과 Lee (200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의 도구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교육환경,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실습업무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이며,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0이었다.

### 4. 자료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3월 25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B광역시와 K도에 위치한 각 간호대학의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문항 수는 78개로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설문지 첫 페이지에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기프티콘으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B광역시 K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No.KU IRB-2021-0051)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간호대학의 허락을 받고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과 협조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접속한 대상자에 한해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접속 시 첫 화면에 연구 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체크를 한 후 시작하도록 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설문이 진행되지 않고 접속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연구 설문지, 동의서, 결과 등은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을 명시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의 과정을 거쳐 최종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25명(89.3%), 남학생 15명

(10.7%)이었고, 나이는 20~23세가 115명(82.1%)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78명(55.7%), 3학년이 62명(44.3%)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71명(50.7%)이었다. 간호학과 진학 동기로는 자신의 자발적 동기 63명(45.0%), 높은 취업의 기회 46명(32.9%), 주위의 권유 31명(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자취의 경우가 81명(57.9%)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9명(56.4%)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4명(52.9%), 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0명(50%)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정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5.79±1.78점이었으며, 20문항 전체의 정답률은 평균 78.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1.20±4.62점이었고,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90점 만점에 평균 64.03±9.05점, 평균평점 3.56±0.50(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실무 역할이 4.05±0.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은 4.02±0.62점, 간호의 전문성은 3.97±0.64점, 사회적 인식은 3.22±0.73점, 간호의 독자성은 1.88±1.03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120점 만점에 평균 63.18±13.89점, 평균평점 2.75±0.60(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영역에서 3.39±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갈등 2.88±0.79점, 실습교육환경 2.65±0.82점, 실습업무 2.54±0.64점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진학 동기(F=5.85,  $p=.004$ ), 지각된 건강상태(F=12.18,  $p<.001$ ), 전공만족도(F=5.83,  $p=.004$ ), 실습만족도(F=6.06,  $p=.00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사후검정 결과, 취업의 용이성이나 주위의 권유와 성적에 맞추어 간호학과에 진학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자신의 자발적 동기로 간호학과에 진학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대상자보다 더 높았고, 실습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다는 대상자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 4.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불안( $r=.32,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간호전문직관( $r=-.21, p=.015$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간호전문직관은 불안( $r=-.234, p=.005$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간호전문직관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 5.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간호학과 진학 동기, 지각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

Table 1.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um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linical Practicum Stress		
			Mean±SD	t or F(p)	Scheffé test
Gender	Female	125 (89.3)	63.54±13.91	-0.88 (.381)	
	Male	15 (10.7)	60.20±13.88		
Age(yr)	20-23	115 (82.1)	64.21±13.34	1.90 (.060)	
	≥24	25 (17.9)	58.44±15.59		
Grade	Junior	62 (44.3)	61.90±14.01	-0.97 (.335)	
	Senior	78 (55.7)	64.19±13.81		
Religion	Yes	71 (50.7)	63.28±13.73	0.09 (.929)	
	No	69 (49.3)	63.07±14.16		
Reasons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Own choice <sup>a</sup>	63 (45.0)	58.89±15.30	5.85 (.004)	b,c)a
	High job opportunities <sup>b</sup>	46 (32.9)	66.59±11.63		
	Recommendation from significant others <sup>c</sup>	31 (22.1)	66.84±11.72		
Residence status	With family	59 (42.1)	61.86±15.51	-.955 (.341)	
	Self-cooking	81 (57.9)	64.14±12.60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healthy <sup>a</sup>	51 (36.4)	56.98±12.19	12.18 (<.001)	c)a,b
	Healthy <sup>b</sup>	79 (56.4)	65.56±13.42		
	Not healthy <sup>c</sup>	10 (7.2)	76.00±12.00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Very satisfied <sup>a</sup>	74 (52.9)	59.54±14.24	5.83 (.004)	c)a,b
	Satisfied <sup>b</sup>	61 (43.5)	67.08±12.78		
	Not satisfied <sup>c</sup>	5 (3.6)	69.40±5.51		
Level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Very satisfied <sup>a</sup>	51 (36.4)	58.57±13.32	6.06 (.003)	c)a,b
	Satisfied <sup>b</sup>	70 (50.0)	64.61±14.54		
	Not satisfied <sup>c</sup>	19 (13.6)	70.26±8.12		

SD=standard deviation

만족도 및 불안, 간호전문직관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간호학과 진학 동기 및 지각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가변수

(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Table 4).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8.39, p<.001$ ),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40~.97로 1.0 이하였고,

Table 2. COVID-19 Knowledge, Anxi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Participants (N=140)

Variables	Subcategories	Mean±SD	Range	Min	Max
COVID-19 Knowledge		15.79±1.78	0-20	10.00	19.00
Anxiety		11.20±4.62	0-21	0.00	21.00
Nursing Professionalism		64.03±9.05	18-90	31.00	87.00
	Self-concept of professionalism	4.02±0.62	-	1.50	5.00
	Social awareness	3.22±0.73	-	1.0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7±0.64	-	2.00	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4.05±0.77	-	1.50	5.00
	Originality of nursing	1.88±1.03	-	1.00	5.00
Clinical Practicum Stress		63.18±13.89	24-120	25.00	106.00
	Unsuitable role model	3.39±0.79	-	1.20	5.00
	Educational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um	2.65±0.82	-	1.00	5.00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88±0.79	-	1.00	5.00
	Conflict with patients	2.54±0.64	-	1.00	4.40
	Stress in clinical practicum	2.29±0.81	-	1.00	4.80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VID-19 Knowledge, Anxi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Subjects (N=140)

Variables	COVID-19 Knowledge	Anxiety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um Stress
	r( $\rho$ )	r( $\rho$ )	r( $\rho$ )	r( $\rho$ )
COVID-19 Knowledge	1			
Anxiety	-.11 (.181)	1		
Nursing Professionalism	.07 (.441)	-.23 (.005)	1	
Clinical Practicum Stress	-.06 (.476)	.32 (<.001)	-.21 (.015)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um Stress (N=140)

Variables	B	SE	$\beta$	t	$\rho$
(Constant)	54.94	13.22		4.15	<.001
Perceived Health status (ref: Not healthy)	0.43	1.91	0.39	3.19	<.001
Anxiety	0.29	0.27	0.25	3.33	.033
Motivation of Choosing their major (ref: Easier getting job)	0.22	0.93	0.17	1.24	.011

$R^2=.26, Adj R^2=.23, F=8.39, \rho<.001$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22~2.5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5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 $\beta=.39, p<.001$ ), 불안( $\beta=.25, p=.033$ ), 간호학과 진학 동기( $\beta=.17, p=.011$ )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취업의 용이성이나 주위의 권유나 성적에 맞춘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COVID-19 시기에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간호실습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호학과 진학 동기, 지각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 특성 중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간호학과 진학 동기'이다. 이는 주위의 권유보다 스스로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하였다는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는 Lee(2022)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체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이전의 저학년부터 충분한 진로개발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78.9% (15.79±1.78점/총점 20점)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지식정도를 확인한 연구(Nemati, Bahareh, & Fatemeh,

2020)에서 정답률 6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한 Kim 등(2021)의 연구보다도 높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COVID-19의 장기화로 관련 정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충분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등을 통해 주로 전달되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찾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디지털 매체와 친숙한 20대로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에 더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한 것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Park et al., 2021). COVID-19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COVID-19에 대한 증상, 예방지침 등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원인균에 대한 문항, 치료 관련 문항에서의 정답률은 각각 25.7%, 47.1%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다는 Yoo 등(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경우 이들이 예비 의료인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더욱 심화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최신의 감염병 대응지침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21점 만점에 11.20±4.62점으로 나타났다. Park, Jung과 Kim (2021)의 연구에서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6.86±1.8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Hwang과 Lee (2020)의 연구에서는 1, 2학년에 비해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수행 경험이 있는 3, 4학년의 불안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가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감염에 대한 걱정, 전염병 통제의 어려움, 전국적인 의료시설의 부족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Park, Jung & Kim, 2021; Lee et al., 2021; Nemati et al., 2020),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도중 이러한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이러한 높은 수준의 불

안이 지속되면 임상실습에서 학습감이 저하되거나 (Yoon & Kim, 2016)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im & Yang, 2015). Lee와 Ahn (202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COVID-19이 확산됨에 따라 자신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동시에 이러한 기회에 실습을 하여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양가감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불안이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불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 \pm 0.50$ 점으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에서 첫 임상실습 후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결과(Lee & Ahn, 2020; Lee & Lim, 2021)와 팬데믹 상황이라는 감염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차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어도 기꺼이 환자를 위해 치료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Lee와 Ahn (2020)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이들에게 감염병 상황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예비간호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COVID-19과 같은 상황은 감염병 사례의 생생한 현장이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어(Lee, et al., 2021)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선배간호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 \pm 0.50$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확인한 Lee 등(2022) 2.40점,

Park 등(2022) 2.77점, Lee 등(2022)의 3.07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시기가 선행연구들보다 좀 더 이른 시기로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지속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은 예기치 못하게 임상실습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임상실습 기관 확보 또한 제한적이어서 교내실습 또는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대체되는 등(Lee & Lim, 2021)의 수시로 변경되는 임상실습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어(Aslan & Pekince, 2021)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COVID-19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Kim & Lee (2005) 2.98점, Park & Oh (2014) 2.80점, Kim & Yang (2015) 3.16점으로 본 연구결과인 5점 만점에 평균  $3.56 \pm 0.50$ 점보다 낮게 나와 COVID-19 이전보다 COVID-19 이후 상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OVID-19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은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이 잦아 간호대학생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대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임상실습 내용과 기준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체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간호전문직관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COVID-19에 대한 지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COVID-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불안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Lee 등(2022)의 연구, 불안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22)와 유사점이 있으며, 의료인들이 COVID-19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영향을 겪고 있다는 Spoorthy 등(2020)의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불안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의 개발 및 효과적인 불안 중재가 필요할 것이며,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실습지도 시 현장 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 간호학과 진학 동기, 불안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2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Lee & Ahn, 2020; Lee et al., 2022)와 어느 정도 유사하였지만 COVID-19 상황에서 시행된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연구결과를 명확히 비교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데 제한이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COVID-19이 붙은 유일한 변수였던 지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는데, 이는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과 동시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노출로 인하여 비교적 COVID-19 발생 초기에 시행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OVID-19에 대한 지식 대신 선행연구에서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 전공만족도(Lee et al., 2022), 실습동료와의 관계(Park, Jung & Kim, 2021), 감염 전파에 대한 두려움(Aslan & Pekince, 2021) 등을 변수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될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임상실습 및 간호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개 지역에 국한된 4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여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에 대한 지식, 불안,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COVID-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낮고 불안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간호학과 진학 동기, 불안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수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하여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대학 측면에서 예비간호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켜주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불안을 전략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포함할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추후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 위기에 적응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의료진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도 불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예비 의료인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 상황 또는 임상실습 환경 변화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불안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추후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Aslan, H., & Pekince, H. (2021).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7(2), 695-701. <https://doi.org/10.1111/ppc.12597>
- Beck, D., & Srivastava, R.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Cho, O. K., & Shin, S. B. (2020). COVID-19 and untact-online lectures. *Student Press of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trieved November 11, 2022, from <http://cals.snu.ac.kr/en/board/student?bm=v&bbsidx=10597>
- Collado-Boira, E., Ruiz-Palomino, E., Salas-Media, P., Folch-Ayora, A., Muriach, M., & Balio, P. (2020). "The COVID-19 outbreak"-An empirical phenomenological study on perceptions and psychosocial considerations surrounding the immediate incorporation of final-year Spanish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into the health system. *Nurse Education Today*, 92, 104504.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504>
- Han, S. S., Kim, M. H., & Yung,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Hwang, S. J., & Lee, M. I. (2020). Perceived knowledge, anxiety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 performance on COVID-19 b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2), 459-468.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459>
- Kim, J. S., & Choi, J. S. (2016).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knowledge, preventive behaviours and risk perception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outbreak.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 2542-2549. <https://doi.org/10.1111/jocn.13295>
- Kim, H. J., Cheon, E. Y., & Yoo, J. H. (202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risk perception, preventive health behavior from coronavirus disease-2019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246-254. <https://doi.org/10.5762/KAIS.2021.22.4.246>
- Kim, H. S., & Park, J. H. (2018). Predictors of MERS-related preventive behaviors performance among clinical practice students in a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174-185. <https://doi.org/10.5762/KAIS.2018.19.9.174>
- Kim, S. R.,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Kim, E. Y., & Yang, S. H.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417>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Coronavirus disease(COVID-19)*. Retrieved October 23, 2022, from <https://ncv.kdca.go.kr/hcp/page.do>
- Lee, C. K., & Ahn, J. H.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142>
- Lee, H. K., Choi, H. W., Kim, M. J., Kim, Y. S., Kim, J. S., Park, D. I., Lee, H. S., Jung, S. H., & Choi, Y. S. (2022).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5), 101-110. <https://doi.org/10.22678/JIC.2022.20.5.101>
- Lee, K. H. (2022).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who performed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during the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1), 715-727.

-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1.715>
- Lee, O. S., & Lim, J. H.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https://doi.org/10.14400/JDC.2021.19.5.479>
- Lee, S. J., Jin, X. L., & Lee, S. J. (2021).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knowledge, risk percepti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3(2), 110-118.  
<https://doi.org/10.7586/jkbns.2021.23.2.110>
- Nemati, M., Ebrahimi, B., & Nemati, F. (2020). Assessment of iranian nurses' knowledge and anxiety toward COVID-19 during the current outbreak in iran. *Archives of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e102848.  
<http://doi.org/10.5812/archcid.102848>
- Park, H. J., & Oh, J. W.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 Park, J. H., Kang, D. Y., Kang, J. M., Gwak, N. H., Kim, C. E., & Lee, M. K. (2022). The association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101-112.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101>
- Park, J. H., Kim, J. H., Lee, H. J., & Kang, P. R. (2021).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1), 48-59.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1.48>
- Park, K., Jung, M., & Kim, S. H. (2021). Effects of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4), 1361-1374.  
<http://dx.doi.org/10.22143/HSS21.12.4.97>
- Seo, J. G., & Park, S. P.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16, 97.  
<https://doi.org/10.1186/s10194-015-0583-8>
- Spitzer, R., Kroenke, K., Williams, J.,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https://doi.org/10.1001/archinte.166.10.1092>
- Spoorthy, M., Pratapa, S., & Mahant, S. (2020). Mental health problems faced by healthcare work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A review.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102119.  
<https://doi.org/10.1016/j.ajp.2020.102119>
-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Yoo, E. Y. (2020).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needs about corona19 infection contr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2), 335-341.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335>
- Yoon, H. S., & Kim, K. H. (2016).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by new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3), 903-922.
- Zhang, W., Wang, K., Yin, L., Zhao, WF., Wue, Q., Peng, M., Min, B., Tian, Q., Leng, HX., Du, JL., Chang, H., Yang, Y., Li, W., Shangguan, FF., Yan,

TY., Dong, HQ., Han, Y., Wang, YP., Cosci, F., & Wang, HX. (2020).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medical health workers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n China.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89(4), 242-250. <https://doi.org/10.1159/000507639>

ABSTRACT

## The Influences of COVID-19 Knowledge, Anxi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um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Lee, Ho Im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Sung, Ji Hyu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level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knowledge, anxi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stres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and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140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three nursing college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t-tes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Results:** The study arrived at a mean score of  $63.18 \pm 13.89$  for clinical practicum stress,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reasons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Anxiety and professionalism exhibited a noteworthy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um stres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um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were perceived health status ( $\beta=.39, p<.001$ ), anxiety ( $\beta=.25, p=.033$ ), and the reasons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 $\beta=.17, p=.012$ ).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3.0% ( $F=6.28, p<.001$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education to promote nursing professionalism during a pandemic.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include various programs in the curriculum that strategically intervene to prevent anxiety in pre-service nurses. This would reduce the stres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when faced with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stress, Professionalism, COVID-19